

출제 원칙

1. 출제 방침

- (1) 여러 교과목과 관련되는 통합교과적 지식이 요구되는 문제를 출제한다.
- (2) 둘 이상의 지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 (3) 단순 암기나 도식적인 이해를 넘어선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4) 우리의 삶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 (5) 고등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제시문을 구성한다.

2. 출제 유형

- (1) 지문 제시형으로 출제한다.
- (2) 통합 교과형으로 출제한다.
- (3) 총 세 문항의 유형과 분량은 다음과 같다.
 - 문항 1 : 내용 파악 후, 비판적 사고 능력과 논술 능력(띄어쓰기 포함 300~350자 / 20점)
 - 문항 2 : 비교 분석 후, 종합적 사고 능력과 논술 능력(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 문항 3 : 내용 파악 후, 종합적 사고 능력과 논술 능력(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채점 기준



(20점)

1. 기본 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D=D0 /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2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2. 답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채점기준

(1) 내용 (80%)

가. 문항 취지

- 제시문 (가)와 (나)를 정확하게 독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단순 암기나 도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 두 제시문의 핵심사항과 상관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적절한 개념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나.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주)교학사, 194~196쪽;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주)금성출판사, 235~236쪽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56쪽;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 19~20쪽;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주)금성출판사, 237쪽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내용을 자연스럽게 운문하였다.
-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사회, 법과 정치, 윤리와 사상 등 해당 주제와 일치하는 여러 교과서의 내용을 통합·정리하여 자연스럽게 운문하였다.

다. 문제 해설

문제 : 정치에 대해 (가)가 바라보는 관점을 (나)의 관점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 제시문 (가)의 민본주의에서 정치의 주체는 군주이고, 백성은 그 대상이다. 민본주의에서 정치는 왕정 또는 군주제에 기초한다. 민본주의 정치는 군주가 민의에 따라 덕치를 행해야 하는 군주의 도덕성과 역할을 강조한다.
- 그리고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통치권의 근원과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동일한 정치 이념이 동서양에서 각각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로 표현된 것이라 한다.
- 제시문 (나)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주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고,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는 자기 지배 원리에 기초한다.
- 민본주의 정치에서 권력의 근원과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왕정에서 권력의 근원과 정당성은 국민이 아닌 왕에게만 있다.
- 민본주의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정치 이념이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로 다르게 표현된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이념은 국민에 의한 정치이다.

라. 채점 방향

- 민본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에 대한 이해와 핵심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에 대한 이해와 핵심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근원과 정당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민본주의의 정치 이념과 민주주의의 정치 이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마. 채점 포인트

- 제시문 (가)의 민본주의에서 정치의 주체는 군주이고, 백성은 정치의 대상이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 될 경우 : 1등급 감점
- 이에 군주는 민의를 존중하여 백성을 위한 덕치를 행해야 하며, 정치의 주체인 군주의 도덕성과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 될 경우 : 1등급 감점
- 제시문 (나)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주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는 자기 지배 원리에 기초한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 될 경우 : 1등급 감점
- 민본주의 정치는 권력의 근원과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왕정에서 권력의 근원과 정당성은 왕에게 있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 될 경우 : 1~2등급 감점
- 민본주의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동일한 정치 이념이 동서양에서 각각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정치 이념은 국민에 의한 정치이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 될 경우 : 1~2등급 감점

(2) 형식 (20%)

가.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가 두 개(예시의 의미 설명, 비교·검토, 문제 원인 및 해결 방안, 찬성과 반대 등)임에 따라 문단 나누기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평가
- ※ 문장부호의 일부 및 교정부호는 온라인 모의논술전형의 답안 입력 시스템상 표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함

나. 분량

- ① 400자 이상 : 2등급 감점
- ② 350자 초과~4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250자~3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④ 200자~2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⑤ 200자 미만 : F

3. 예시답안

(가)는 민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모두 권력의 근원과 정당성을 국민에게 두고 있으므로 용어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민본주의는 왕이 지배하는 왕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반면,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 스스로 지배하는 ‘피지배자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즉 왕정에서는 왕 1인이 나머지 전체를 지배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전체가 스스로를 지배하고 전체는 스스로에 의해 지배된다. 따라서 민본주의가 아무리 군주의 덕치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스스로의 대화와 타협을 원리로 삼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일 수는 없다.

채점 기준 **문항 2** (40점)

1. 기본 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D=D0 /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35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2. 답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채점기준

(1) 내용 (80%)

가. 문항 취지

-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평상시 독서 수준을 가늠한다.
- 두 제시문의 상관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두 제시문에 깃들여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이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나.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주)지학사, 99쪽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주)교학사, 116쪽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내용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단어를 생략하여 지문을 완성했다.
-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지문이다.

다. 문제 해설

문제 : (가), (나)에 나타난 노자와 베이컨의 차이를 자연관과 지식에 대한 관점에서 논하시오.

- 제시문 (가)에 나타난 노자의 입장은 인간이 본래 자연의 덕을 지니고 있으며, 참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무위자연의 세계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의 덕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 제시문 (나)에 나타난 베이컨의 입장은 인간이 물질적 풍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자연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제어하고 변형·조작의 대상이며, 자연을 제어하고 변형·조작하는 까닭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유용성을 얻어내기 위함이다.
- 노자는 인간이 자연 내에 속해 있으며,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니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경험적 지식을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베이컨은 인간이 물질적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을 대상화하여 제어하고 변형·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니 자연을 원활하게 제어하고 변형·조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경험적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채점 방향

일차적으로 자연관의 차이를 묻고 있으며, 그 다음 이로써 발생하는 지식에 대한 견해 차이를 정리하라는 문제이다. 이때 자연과 지식 사이에는 이를 매개하는 인간의 관점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연에 관한 지식은 관찰과 분석을 통해 축적하게 마련이므로, 당연히 인간의 관점에 입각한 경험적 지식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제시문 (가)와 (나)는 이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피력하는 예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반된 관점을 얼마나 적절하게 드러내었는가 채점의 기준이 된다.

마. 채점 포인트

- 제시문 (가)에 노자가 주장하는 자연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2등급 감점
-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자연관과 지식의 관계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경우 1등급 감점
- 제시문 (나)에 제시된 베이컨의 자연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2등급 감점
-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자연관과 지식의 관계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경우 1등급 감점
- 제시문 (가)와 (나)의 변별 사항을 적절하게 드러내지 못한 경우 2등급 감점

(2) 형식 (20%)

가.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가 두 개(예시의 의미 설명, 비교·검토, 문제 원인 및 해결 방안, 찬성과 반대 등)임에 따라 문단 나누기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평가
- ※ 문장부호의 일부 및 교정부호는 온라인 모의논술전형의 답안 입력 시스템상 표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함

나. 분량

-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⑤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 ⑥ 350자 미만 : F

3. 예시답안

노자가 파악하는 자연은 절대적 실체인 도에 의해 운행되며, 인간의 이상적 삶을 가능케 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니 참된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간은 무위자연의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사물의 겉모습이나 형식에 이끌려 경험적 지식 따위를 추구하는데, 이는 사물의 본질이나 가치를 옳게 인식한 것이 아니므로 참된 삶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경험적 지식을 없애야만 한다는 것이 노자의 관점이다.

반면 베이컨에게 자연은 인간이 제어하고 변형,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니 인간은 자연으로부터의 유용함 추구를 과학의 목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관찰과 실험에 기초한 지식, 즉 경험적 지식이다. 베이컨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야말로 객관적이고 참다운 지식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물질적 풍요를 위하여 경험적 지식을 진보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베이컨의 관점이다.

채점 기준

문항
3

(40점)

1. 기본 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A+, A0, B+, B0, C+, C0, D, F ※ D=D0 /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35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2. 답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채점기준

(1) 내용 (80%)

가. 문항 취지

- 제시문 (가)의 이슈(어린이·청소년의 신체 노출을 규제하는 법)에 관해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한다.
- 이 이슈에 관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의 근거를 적절히 마련했는지를 평가한다.
- 근거 구성에서 제시문을,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나, 적절히 참조했는지도 평가한다.

나.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78쪽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250쪽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내용을 약간 윤문하였다.
-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였다.

다. 문제 해설

문제 : (가)와 (나)를 참조하여, 방송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신체 노출을 규제하는 법에 관한 수험생의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논술하시오.

-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 이 '규칙안'에 관한 수험생 본인의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한다.

- 수험생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를 적절히 구성한다.
- 논거 구성에서 제시문을,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나, 적절히 참조한다.

라. 채점 방향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그리고 수험생 본인의 의견 - 찬성이든 반대이든 - 을 지지하는 논거가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채점의 초점이 된다.

마. 채점 포인트

- ① 이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이슈가 법적 규제임을 파악하고 있는가
 - 이 규제가 적용되는 행동 영역은 방송 출연에 국한됨을 파악하고 있는가
 - 이 규제가 적용되는 인적 계층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국한됨을 파악하고 있는가
- ② 이슈에 대한 수험생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가
 - 본인의 찬성 혹은 반대 입장 표명이 명확한가
 - 지지하는 논거가 왜 찬성 혹은 왜 반대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 논거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가

(2) 형식 (20%)

가.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가 두 개(예시의 의미 설명, 비교·검토, 문제 원인 및 해결 방안, 찬성과 반대 등)임에 따라 문단 나누기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평가
- ※ 문장부호의 일부 및 교정부호는 온라인 모의논술전형의 답안 입력 시스템상 표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함

나. 분량

-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⑤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 ⑥ 350자 미만 : F

3. 예시답안

〈찬성하는 입장〉

방송에서 미성년자들의 신체 노출은 규제되어야 한다. 노출 패션도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이라는 방송 관계자의 말은 입법 반대 논거로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한 개인의 어떤 예술적 행동 표현이 그 행위자 아닌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사회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행동에 개입 및 제재할 수 있다. 청소년 방송 신체 노출의 경우 그 해의 종류 및 관련된 타인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어린 아이들이 피해자이다. 예컨대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걸그룹의 방송 퍼포먼스는 중학생들과 초등학생들도 많이 본다. 강한 모방심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돌 그룹의 의상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슬이슬한 노출과 그와 결부된 선정적인 신체 언어가 주는 모방 영향은 어린 아이들에게 해악이며, 이는 차단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해자이다. 검소한 의복은 검소함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듯이, 선정적인 의복은 우리 사회의 쾌락주의적·감각주의적 소비문화 경향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한 사회의 쾌락주의적·감각주의적 소비문화의 심화는 신체적 불건강함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해악이므로, 신체 노출은 규제를 통해 차단되어야 한다.

〈반대하는 입장〉

의복은 개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방편이다. 그런데도 방송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어린이, 청소년의 노출 패션을 규제하려는 정책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누구에게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하여 그러한 권리가 침해되어야 할 까닭은 없다. 또한 이들의 노출 패션이 미성년 시청자들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러한 인과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방송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노출 패션을 모방할 일부 미성년자들은 방송 이외의 다른 경로로 노출 패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을 둘러싼 규제 방안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셋째, 가수나 배우는 노래, 연기를 통하여 문화를 전파하는 발신자이다. 따라서 자신의 담고 있는 문화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형식으로 노출 패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를 규제한다면 문화의 창의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